

초등고학년의 독서부진아에 대한 독서치료 사례연구

A Study of Bibliotherapy for the 'Low-reading achiever' on Reading Attitude in Fifth and Sixth Grade Students

한 복 희(Bock-Hee Han)*

목 차

- | | |
|--------------------------|-------------------------|
| 1. 서론 | 3. 1 초등고학년 아동들의 특성 |
| 1. 1 책읽기에 대하여 | 3. 2 초등고학년 아동들의 스트레스 |
| 1. 2 연구의 배경과 방법 | 3. 3 초등고학년 아동들의 독서지도 전략 |
| 2. 독서부진에 대하여 | 4. 독서치료 사례연구 |
| 2. 1 독서부진의 요인 | 4. 1 대상학생에 대하여 |
| 2. 2 독서부진의 진단 | 4. 2 자료선정과 지도계획 |
| 2. 3 독서장애 요인에 대한 분석 | 4. 3 지도결과 |
| 3. 초등고학년 아동을 위한 클리닉독서 지도 | 5. 결론 |

초 록

독서부진 즉 읽기를 통한 학습 부진의 요인은 신체적요인, 인지적 요인, 정의적 요인, 환경적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초등고학년을 대상으로 그들의 특징, 그들이 갖고 있는 스트레스, 독서지도 전략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학업성취도는 높으나 읽기부진으로 정독하지 못하고 자아중심적인 초등고학년 아동을 위한 독서치료 사례를 제시하였다.

ABSTRAC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reading program for the 'low-reading achiever' on reading ability. In this regard,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iveness of bibliotherapy in improving reading attitude, and self-concept in fifth and sixth grade student. In this study it is illustrated how to form questions and leads a discussion for a bibliotherapy session and suggested reading list and annotated bibliography.

키워드: 독서부진, 독서치료, 상황별 독서목록, 초등고학년

Low-reading Achiever, Bibliotherapy, Situational Bibliography

* 충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hanbh@hanbat.chungnam.ac.kr)
논문접수일자 2003년 5월 30일
게재확정일자 2003년 6월 15일

1. 서론

1.1 책읽기에 대하여

책읽기는 즐거운 것일까? 아동들은 언제부터 읽기를 시작하면 좋을까? 과연 책읽기는 습관이 잘 들어야 하는 좋은 습관들 중의 하나일까? 상상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라고 한다. 우리 모두는 자신만의 인생스토리를 지니고 있다. 그것은 내면의 이야기로서 인간들은 결국 하나 하나의 전기(傳記)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생물적으로 또는 생리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 각자는 모두 자신이 태어난 환경속에서 배우고, 깨닫고, 느끼며, 생각하고, 행동하며, 상호간의 대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또는 의식적으로 만들어지는 자신만의 고유한 이야기를 구축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다. 책읽기는 이러한 일련의 진행 과정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즉 책읽기를 통하여 전달되는 책의 내용은 우리의 인생여정에서 우리의 인생 이야기를 검토하고 수정하게 해주며, 우리의 인생이야기에 꽃을 피워주기도 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나게도 한다.

우리는 우리자신을 보살피주는 이야기, 복잡한 인생의 미로를 자신있게 걸어가게 해주는 이야기, 대안적(代案的)인생을 꿈꾸게 해주는 이야기를 읽음으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인생과정에서 부딪치는 문제에 대한 대응능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어릴적부터 다양하게 독서를 하여 독서량을 많이 쌓아온 사람은 기존의 독서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일상생활 속의 이런 저런 사건이

나 기억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다. 남의 일에서 자기의 일을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곧 상상력의 본체라고 할 수 있다.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 이 상상력이 당연히 아주 활발해 지며, 그런 상상력을 바탕으로 '아,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나만이 아니구나!' 라는 인식을 얻게 되면, 그것이 정신적 치유작용을 일으켜 인생의 활력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독서교육과 독서지도는 책을 즐겁게 읽고 책읽는 생활의 즐거움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독자의 발달수준에 맞게 독서수준이나 흥미를 고려하여 좋은 책을 선정한 후, 올바르게 그리고 다양한 지도방법을 통하여 즐거운 책 읽기를 습관화 시키는 것이 주 목적이다. 클리닉독서의 대상은 읽기부진아(정상아가 발달수준에 따른 해당학년의 읽기 수준에 못 미치는 경우)나 독서장애아 등 독서에 문제가 있는 아동들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독서환경테스트와 독서수준테스트를 통하여 그들의 독서수준을 진단하고 평가하여 각각 상담한 내용에 따라 수준에 맞는 권고된 독서 자료를 제공하며, 교사의 지도아래 읽고 토론 받는 동안에 독서력이 올라가고 자기 수준에 맞는 독서력을 갖추도록 도와주는 전문 맞춤형 독서지도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인 독서지도가 불특정 다수를 위한 독서지도라고 한다면 클리닉독서는 독서부진아를 위한 일대일 개인독서지도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독서치료나 독서치유는 읽기부진과 함께 정서장애나 갈등을 겪고 있는 아동들이 대상으로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건성으로 책을 읽는 독서부진 고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클리닉 독서치료 프로그램과 관찰과정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1. 2 연구의 배경과 방법

독서란 글을 통해 얻은 정보와 그 글의 주제와 관련된 독자 자신의 배경지식을 통합하여 새로운 의미를 구성하는 사고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읽기의 과정은 단순히 문자를 소리화하는 과정만이 아니라 언어를 통한 의미 파악의 과정으로서 독서과정은 사고, 평가, 상상, 추론 및 문제해결의 모든 과정을 포함한다. 따라서 독서력은 모든 학습에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학습력이라고 할 수 있다. 독서부진은 읽기부진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곧 독서력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을 때는 읽기부진은 모든 학습활동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학습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은 교사나 부모, 또래들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 정서적인 문제들로 갈등을 겪고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갖게 되는 경우가 흔히 발생된다.

우리나라에서 독서교육에 관한 연구는 많이 되었지만 독서치료에 관한 연구는 아직 초보적 단계라고 생각한다. 독서치료(bibliotherapy)는 독서를 교육의 목적이라기보다는 치료나 개선의 목적을 가지고 도움이 되는 책을 읽도록 하고, 그 결과를 토의를 통해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개인의 성장이나 재활을 용이하도록 해주는 보다 전문화된 형태의 독서지도기능이다.

일반적으로 독서치료를 발달적(예방적) 독서요법과 임상적(치료적) 독서요법으로 구분한다. 독서부진을 진단하고 교정하는 클리닉 독서지도는 예방적 독서요법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독서부진 문제를 교정하고 치료하는 것은 정서적으로 더욱 복잡한 문제가 되는 것을 예방하게 된다. 그동안 문헌정보

학분야에서 생산된 독서치료연구에 대한 논문은 십수편에 불과하다. 독서치료 연구는 앞으로 평범한 아동과 청소년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그러나 들어나지 않고 있는 문제들을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진단과 독서치료에 도움되는 독서자료의 권고 등 적절한 지도를 통하여 밝은 학교생활과 가정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 적용이 광범위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2. 독서부진에 대하여

2. 1 독서부진의 요인

독서부진 즉 읽기를 통한 학습 부진의 요인은 신체적요인, 인지적 요인, 정서적 요인, 환경적 요인으로 볼 수 있다(이선옥, 8-11).

1) 신체적 요인

시각적 장애, 청각적 장애, 부정확한 발음과 낮은 지능의 언어장애, 기타 영양 부족이나 과도한 TV시청으로 인한 일반적인 건강에 장애 등 신체조건 중 어느 하나가 잘못되어도 읽기 능력이 부진할 수 있다.

2) 인지적 요인

낮은 지능, 인지능력, 말하기, 듣기, 쓰기 등 언어적 능력 등을 말한다. 지능과 읽기 성취의 관계는 중요하므로, 특히 평균이하 지능을 가진 아동의 배우는 내용이나 정도를 한정짓기 위해 사용되기 보다는 기대되는 것만큼 읽기를 못하는 아동을 밝혀내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3) 정의적 요인

읽기 곤란을 가지고 있는 대다수의 아동들은 정서적 부적응과 행동적인 문제를 보인다. 특히 이들은 인내심 부족, 주의 산만, 근심, 적대감, 불안, 분노, 공격, 회피, 두려움, 자신감 부족 등의 현상을 보인다.

4) 환경적 요인

환경적 요인에는 가정환경, 또래집단, 학교 환경 등을 들 수 있으며, 예를 들어, 가정환경이 좋아지면 읽기 수준도 향상된다고 한다.

2. 2 독서부진의 진단

독서부진은 읽기 부진이라고 할 수 있으며, 동년배의 읽기발달에 비해 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부진의 원인이 주로 선천적인 것이거나 내적인 것이 아니라, 지능이나 기타 학습요건은 정상아동과 유사하나 환경이나 교수 학습의 실패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독서부진을 진단하는 것은 일반적인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독서지도를 시작할 때, 우선 그 아동의 독서에 대한 제반의 정보를 파악하므로, 아동의 흥미와 수준과 환경을 고려한 차별화된 독서지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독서수준에 대한 진단은 아동의 독서 문제와 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들을 살펴보고, 무엇을 가지고 어떤 수준에서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교사에게 도움을 준다. 그리고 가르치고 있던 아동의 독서력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개선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어느 부분이 취약한지를 파악하여 연계된 지도를 통하여, 다음 단계의 지도 목

표를 수립하는데 도움을 준다. 진단을 위한 진단지는 상담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진단지를 포함해서 학년에 따른 읽기능력이라든지 단어능력 테스트 등 여러 기관에서 마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표준 진단지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진단은 읽기부진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는 방법이며, 학생의 읽기 장점과 현재 환경의 특성, 그리고 아동의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환경적 요인을 진단하는 것이다. 진단은 경우에 따라 체크리스트에 의한 일반적 진단에서 구체적이면서 자세한 총체적 진단까지 행해지며, 학생의 초기 상담 정보를 기초로 하여 누가적인 정보를 활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 따라 학생을 진단하고 자료를 선정하며, 독서지도를 시행하는 것이다.

2. 3 독서장애 요인에 대한 분석

또한 독서장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하여 독서지도사와 교사들에게 설문조사를 하였다. 독서지도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응답 내용으로서 편향적독서습관, 책읽기를 싫어한다든지, 단순한 책만 읽는다든지, 독서습관이 부족하다든지 등의 답변은 이를 입증해주는 것이다. 또한 클리닉독서의 필요성도 보여주는 응답내용으로는 이해력 집중력이 부족하다든지, 읽기장애문제가 있다든지, 주의가 산만하다든지, 수준에 맞는 책을 모른다든지 하는 내용들은 독서수준테스트를 통한 독서지도의 방법이 필요함을 입증하는 응답내용이라고 생각된다. 세부적인 응답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독서장애 요인에 대한 응답

* 문항
컴퓨터나 TV 같이 즉각적·감각적인 자극에 너무 익숙해져 있음
그림책, 만화책, 판타지, 무협지만 골라봄
자신이 좋아하는 종류의 책만 보려는 경향/편중된 독서
일단 책을 읽는 것을 싫어함
이해력과 집중력이 부족함
책은 다 읽었는데 내용이 무엇인지 모를 때
끈기가 없어서 책을 끝까지 읽지 않음
사교가 필요없는 짧고 단순한 책만 읽음
주변환경의 미비, 주의산만
독서습관부족
읽기 장애
책을 읽는 방법을 모름
상황과 수준에 맞는 책을 골라 읽지 못함
시간을 투자해서 끈기있게 읽지 못함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독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 독서를 함
표현의 어려움, 독후감에 대한 부담감이 큼
읽어서 깊게 생각하거나 논하는 자체를 싫어함
학교·학원으로 인해 책 읽을 시간이 부족함
책 두께를 보고 선택
친구들과 놀고 싶어서
등장인물이 많고 이야기 줄거리가 복잡하면 읽기를 포기함
자발적이지 않음
집에 양서를 많이 비치하지 않고 아이만 혼내는 부모
책 제목만 훑어보고 다 안다고 생각하는 피상적인 지식 습득으로써의 독서
책을 읽을 필요성이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함
고전에 대한 고정관념(딱딱하고 지루함. 재미없음)
인터넷 홈페이지에 학습 자료를 탑재해도 읽지 않고 제목만 구경하는 경우
끈기있게 상상할 수 없다
TV를 보면서 책을 읽음
숙제를 위한 독후감 작성을 목적으로 읽음
책에서 무언가 눈에 보이는 지식만을 얻으려는 태도, 목적의식만이 많은 경우는 오래도록 즐거움을 느끼지 못할 듯싶음
책에만 빠져들어서 수업에 들어가려 하지 않음
나태함(잠을잠)
책읽는 권수에 연연한 나머지 감동에 대해 느끼지 못하는 것 같음
너무 책만 읽음
베스트셀러만 봄
책을 쉽게 접할 수 없어서
시력저하
장난이 심함
그림만 봄
엄마가 분위기 조성을 못한 것 같음
과업에 맞는 독서를 잘 하지 못함

3. 초등고학년 아동을 위한 클리닉 독서 지도

3.1 초등고학년 아동들의 특성

초등고학년(12세, 13세) 아동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책과 싫어하는 책을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다. 또 책에 취미를 붙인 아동들의 경우 책을 아주 좋아하지만, 그렇지 않은 아동들은 영영 책을 싫어할 우려가 있는 때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시기는 독서습관을 정립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볼 수도 있다.

또한 이시기는 자아의식이 싹트고, 일찍 찾아오는 사춘기 때문에 아동들에게 지적인 능력과 함께 정신적인 성숙까지도 모두 이끌어 주어야 하며, 아동의 말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인격체로 대해 주어야 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의 아동들을 독서능력의 발달단계로 볼 때, 독서 준비기(-5.5세), 독서 입문기(5세 - 7세), 기초적 독서기(6세 - 8세), 전개 독서기(8세 - 11세)를 거쳐 성숙 독서기(12세 -)로 독서기술이 숙달되는 시기로 볼 수 있다. 이 시기 이후에는 사색적 독서기(15세 -)로 독서기술을 구사하여 평가, 비교, 종합하고 사색하여 창조적 경지에 이르게 된다. 또한 독서흥미의 발달단계로 볼 때, 초현실적 반복 이야기기(2세 - 6세), 옛날이야기(4세 - 6세), 우화기(6세 - 8세), 동화기(8세 - 10세), 이야기기(10세 - 12세), 전기기(12세 - 14세), 문학기(14세 -), 사색기(17세 -) 중 전기기로서, 이 시기에는 가치관의 형성에 도움이 될 책들을 많이 찾게 되고 관심사(흥미)가 많기

때문에 인물이야기들을 권해주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된다.

클리닉은 초등고학년 아동들의 보편적인 성향을 아래와 같이 지적하고 있다(클리닉, 174-8). 초등고학년에 해당하는 11세는 이성에 관심을 가지는 나이이며, 12세는 사회적 동물이 되는 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성향으로서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서로를 좋아한다, 음악을 즐겨 듣는다, 공포영화와 환타지류의 책을 좋아한다, 머리와 옷차림에 신경을 쓴다. 갓난아기와 아이를 좋아한다, 친구에게 편지를 보내고 청소년 잡지를 읽는다, 서정적인 시와 노래를 암송한다, 야구, 축구, 농구 등 모든 스포츠를 좋아한다, 모험과 생존에 관한 이야기를 좋아한다, 친구의 옷차림과 행동을 따라한다,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좋아한다 등의 성향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동물이 되는 나이를 나타내는 성향으로서 왕성하게 먹고 신체적 활동을 좋아한다, 이성에 대한 구체적인 관심을 갖는다, 친구들과 어울려 어른들 몰래 미팅을 하기 시작한다, 사실이나 허구를 기록한 역사책에 관심을 보인다, 코미디, 환상, 공상과학 소설을 좋아한다, 자신의 사회적 활동에 관심이 크다, 여자아이들은 옷과 헤어스타일에 신경을 쓴다, 친구와 전화 통화를 오래한다, 심리적 변화가 크다. 아무 일도 아닌 것에 울거나 웃기도 한다,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을 하기 좋아한다, 패션, 음악, 게임 등 10대 잡지를 읽는다, 이유 없이 쌀쌀맞은 태도를 보인다 등의 성향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물론 번역 도서이기 때문에 미국적인 특징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초등고학년들의 특성을 잘

표현하고 있다.

고학년 아이들의 성장 발달 과정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전정재, 176-181). 첫째, 육체의 발달이 심리에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보편적으로 여자아이들이 남자아이들보다 키도 크고 몸매도 성숙하며, 성(섹스)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이 시작되며,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친구들과 속삭이는 일이 잦아지며, 지저분했던 글씨체가 깨끗하게 바뀌기 시작한다고 하였다. 둘째로, 감정영역이 발달하게 됨에 따라 친구들 사이에만 통하는 생각이나 말투 따위가 발달하여 부모의 가치관을 어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며, 공부에 흥미를 조금씩 잃어 가는 수가 있으며, 자아의식이 생기기 시작하며,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며, 자기중심에서 벗어나 남의 감정에 예민해지기 시작하며, 특별한 경우, 정신분열증이 생기기 시작한다고 하였다. 셋째로, 사회 적응능력이 발달하여, 아주 친한 친구가 있는가 하면, 5~6 명의 그룹이 함께 몰려다니기 시작하며, 남의 느낌을 받아들이는 흡수력이 강하기 때문에 특히 친구들을 이해하려 노력하며, 자기 스스로 규율을 만들어 그 법칙에 따라 행동하기를 좋아하며, 가치관 형성이 촉진되는 나이이므로 부모와 약속된 가사의 여러 가지 책임과 그 책임을 어겼을 때의 결과 등을 함께 의논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넷째로, 지능이 발달되므로 남녀의 차이가 공부나 다른 능력에서 현저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며, 개인의 두뇌 발달 방향이 유전적 요인, 성격, 환경의 영향에 의해 이 나이에서 현저하게 달리 이루어질 수 있다. 이때에 심사숙고형과 충동적인 형, 종합적 사고형과 분리적

사고형 등으로 발전될 수 있다고 하였다.

3. 2 초등고학년 아동들의 스트레스

아동들은 개인차이는 있지만 또래 집단들의 발달단계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살펴보고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은 중요하다. 따라서 아동들의 나이와 특성에 맞게 책을 선택해서 공급해 주는 것은 아동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자기훈련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아동들은 매일 매일의 가정생활과 학교 생활속에서 부딪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극복해 가면서 성장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아동들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한다. 바바라 쿠첸은 고학년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느끼는 스트레스를 다음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다(쿠첸, 28-9). 성적인 성숙으로서 특히 여자아이들은 뚜렷한 특성이 나타나는 것을 스스로 인식한다. 사회적 문제점으로 사회적인 문제들에 대한 관심을 표출한다. 체격에 대하여서도 여자아이들이 크다는 사실 때문에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모두 당황해 하며, 아주 작은 아이나, 반대로 아주 큰 아이는 자신의 체격에 대해 관심이 많다는 것이다. 수줍음의 문제도 있으며, 반대 성에 대하여 부끄러워하면서도 관심이 있다. 혼란을 느끼며, 너무 많은 자유가 부여되면 어쩔 줄 모른다. 건강문제라든지 돈에 관심이 있으며, 돈을 벌어서 쓰기를 갈망하지만 그러나 종종 그릇된 생각을 하기도 한다. 아주 심하게 경쟁심을 갖고 있는 경우 또래집단을 선망의 대상으로 여긴다. 격렬하게 많은 활동에 참여하여 지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자아개념을 갖기 시작하여, 자신의 이미지를 부각시

키려고 짓궂은 장난을 하거나, 어떤 일에 대해 남을 탓하거나 심술궂게 공격을 하기도 한다. 종종 부모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거나 참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영웅을 존경하며, 공정한 놀이에 대해 매우 발달된 의식을 갖게 된다. 약물과 성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실험해 본다. 또한 사람의 행동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 된다고 하였다.

3.3 초등고학년 아동들의 독서지도 전략

초등고학년은 자립적인 독서시기로, 독해에 큰 비중을 두고 글을 읽게 되며 목독이 강조된다. 사실과 의견 구별하기, 정보 축약하기, 생략된 정보 추론하기, 이어질 내용 예측하기, 비유적 표현의 의미 이해하기, 표현의 적절성 판단하기 등과 같은 기초 독해기능을 기르는 단계로 목독중심, 의미중심으로 글을 읽는 시기이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다양한 배경(경험)지식과 관심사, 태도 등으로 인해 나타나는 개인적인 독서 방식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토대로 이해하면서 새로운 것을 관련지을 수 있게 도와 주어야 한다. 이 시기에는 인지발달 측면, 정서발달 측면, 사회적 발달 측면 등을 고려하여 독서지도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인지발달 측면의 독서지도 전략의 특성은 과거 사건들의 시간적인 순서를 이해하게 되며, 문제를 추상화하는데 논리적인 규칙과 추론, 형식적인 조작들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지도 방법은 역사적인 관점과 견해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책이나 사물을 읽도록 하며, 사고하는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질문하고 토론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정서발달 측면의 독서지도 전략의 특성은 아이들은 발생하게 되는 일에 대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고 있고, 성공과 실패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과 독립성을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것 그리고 의식적이고 비판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지도 방법은 책임감, 조직하기, 결정하기 등을 강화시키고, 내면화된 통제력을 개발할 수 있는 책을 제공하고, 독립성을 키워 줄 수 있는 책과 성장 문제를 경험하는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

사회적 발달 측면의 독서지도 전략의 특성은 아이들은 일을 시작하고 탐색하기보다는 잘하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설정한 기준에 이를 수 없다고 느끼게 되면 열등감과 부적절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정의감이 강하게 표출되기도 하며, 또래 집단의 영향이 커져가기 시작한다. 부모에 대한 복종은 줄어들고 또래에 대한 복종은 증가한다. 부모에게 도전을 하기도 한다. 성 역할 기대에 강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다. 여자아이들은 남자다운 일에서 실패하며, 남자아이들은 여자다운 일에서 실패하기도 한다.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들은 반대 성의 정체성을 받아들인다. 지도 방법은 관심도가 높은 분야의 책을 제공하여 지식이 확장 되도록 격려하며, 사회에 대한 부정, 부조리를 발견할 수 있는 이야기를 읽고 논의한다. 또래 집단의 이야기, 가족의 가치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을 제공하며, 반대 성과의 관계를 발달시킬 수 있는 책을 제공한다.

4. 독서치료 사례 연구

4.1 대상학생에 대하여

대상 아동은 학업성적은 우수하지만 읽기 습관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으로 독서상담을 받고, 상담선생님의 지도아래 모듬(4명)으로 독서지도를 받은 학생이다. 독서지도와 관찰기간은 4학년 2학기 9월부터 5학년 5월까지로 주 1회, 60분을 기준으로 총 36회 9개월간 독서지도를 받았다. 아동의 가정환경은 중상류 층으로, 어머니는 집에 계시며, 중학교 1학년 누나가 있고, 대체적으로 좋은 가정환경에서 교육열의가 높은 부모님과 함께 지내고 있다. 어머니는 아동이 많은 책을 읽은 것에 자부심을 갖고 계셨으며 계속적으로 책을 읽게 해 주고 싶다고 하셨다.

독서수준 테스트 결과를 보면, 독해력 테스트는 독립수준인데 비해, 어휘력이 약한 편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학업성적은 높은 편인데, 철자법 때문에 국어과목에 지장을 받고 있으며, 성격이 급하고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강하게 보였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건성으로 책 읽는 습관이 배어 있고, 시간만 되면 만화책에서 손을 떼지 못하였으며,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강하고, 어머니가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있었다.

이 아동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아동은 많은 책을 읽었지만 건성으로 책을 보는 경향으로 책을 읽으면 전체적인 내용은 어렴풋이 대답을 했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자신 있게 말을 하지 못하였다. 많은 책을 읽었지만 그 책들을 건성으로 보아왔기 때문에 '읽기'의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학업성적이 우수한 아동이라 할지라도 '읽기 습관'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학업성적은 서서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읽기의 문제'가 있는 경우 여러 가지 유형으로 살펴 볼 수 있지만, 이 아동의 경우 만화책의 영향(이야기의 긴박감, 언어사용의 문제 등), 다독(시간적 여유가 없고 반납은 해야하니깐, 돈을 주고 빌려 아까운 마음에 책제목에만 눈 도장, 깊이 읽지 않아 생기는 이야기의 혼동 등), 속독(활자 매체에 의한 책읽기 등)등의 문제에서 단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 아동에게는 정독하는 습관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었다.

둘째,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강했던 이 아동의 문제는 가정 환경적 요인에서 찾을 수 있었다. 이 아동의 어머니는 자주 찾아오시는 편이었고 아동이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모습이 보였다. 아동이 다른 것은 절대 신경 쓰지 않기를 바라셨고 공부에 도움이 되는 것만하고 '공부'만 잘 해주길 원하셨다. 어머니의 공부에 대한 지극한 정성과 헌신이 아동을 자기 중심적인 성향으로 만들었다는 느낌을 받았다. 위로 누나와의 관계에서도 '배려'가 없었고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물건도 네 것과 내 것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었다. 가족들이 아동을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아동의 자아개념의 발달은 초기에 부모나 가족구성원에 의해 영향을 받고, 점차 성장해감에 따라 또래 친구들과 교사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이 아동의 경우, 이렇게 형성된 자기중심성향이 또래 관계에까지 이어지

게 되면, 친구들 사이에서 고립되는 경우가 있게 되고 이로 인해 부적절한 자아개념이 생길 수도 있었다.

〈모르는 책〉을 읽고 토론하는 날, 생각열기를 하기 위해 “집단 따돌림은 어떤 아이들이 당한다고 생각하나요?” 라는 질문에 모듬 아이들은 “왕자병 공주병이 있는 친구, 고집이 센 친구(무엇이든 마음대로 하는 아이), 학습 방해하는 친구(다 알고 있다고 잘난 척 하는 아이).....” 등의 말을 했다. 이 때 “어, 바로 나네.” 했던 이 아동의 말은 친구관계가 원만하지 않음을 드러내고 있었다. 자기중심적인 사고는 친구관계, 사회 생활 등 우리가 생활하는 전반에 걸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따라서 이 아동에게는 ‘가족, 정서’에 도움이 될만한 책을 선정하기로 하였다.

이 아동의 경우, 어머니의 교육적인 열의에 의한 ‘확인 절차’는 ‘부모님께 보여주기 위한 책읽기’의 습관이 들게 했고, 다독에 대한 어머니의 자부심과 칭찬은 이 아동으로 하여금 건성으로 책을 읽게 하였으며, ‘공부’에 대한 지나친 열의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이며, 자기중심의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에게 정독하는 습관을 키워주고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독서지도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정독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준다.

- 1) 어머니의 확인절차 방법을 ‘책을 읽었나 안 읽었나’에서 ‘어머니와 함께 책을 읽고 재미있거나 인상깊은 내용, 또는 시사적인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방법’으로 바꿔 본다.

- 2) 책 읽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주고 정독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준다.
- 3) 만화책을 많이 읽을 때 습관화되는 단점에 대해 이야기해 준다.
- 4) 책을 읽고 난 후, 책 내용의 전체적인 부분과 세부적인 부분을 나누어 이야기해보고, 건성으로 읽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살펴보게 한다.
- 5) ‘날말 기록장’을 만들어 어려운 낱말이 나왔을 경우, 직접 사전이나 참고자료를 이용하여 기록하게 한다(어휘력 증가에 도움).

둘째, 자기중심적인 성향에서 더불어 사는 삶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준다.

- 1) 어머니의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부모는 자녀들의 생활에서 많은 영향을 받게되는 중요한 인물이다. 따라서 부모님이 아동의 문제점을 알고 지원해줄 때 아동이 문제를 극복해 가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구체적으로
 - * 어머니의 헌신적인 노력(모든 것을 다 해 줌)으로 자란 아동 즉, 온실 속에서 자란 아동들의 부정적인 영향을 인식한다.
 - * 아동 스스로 해야할 일을 정해준다.
 - * 아동을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하면서 아동이 맡겨진 일에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 2) 아동이 집에서 가족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정해 매일매일 실행할 수 있게 한다.
- 3) 친구, 가족, 정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을 선정해서 읽도록 한다.

위 아동의 경우, 지도 할 때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면서 지도했다.

초등 5학년이기 때문에, 이미 과거에 습관화 된 읽기 경험을 무시할 수 없었다. 따라서 아동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정독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이 필요했다.

자기중심적인 성향에 대한 문제는, 아동에게 직접 지적하게 되면 아동의 자존심, 자존감을 크게 다치게 할 수도 있으므로 책을 통해 자연스럽게 접하게 해주었다.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느끼게 될 때 아동의 내적 동기는 더 활발하게 진행된다. 그리고 공통된 관심사로 적절한 해답을 얻기 위해 모둠 아이들끼리 의견을 나누고 정보를 교환하는 과정을 거쳐 즉, 토론이라는 과정을 거쳐 자신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지도하였다.

4. 2 자료 선정과 지도 계획

위 아동을 위해 선정된 자료와 활동 목표는 다음과 같다(표 2 참조). 이 목록을 가지고 클리닉 독서지도를 하였으며, 그 중에서 독서 지도를 위한 자료로서 2개의 교안을 제시하였다(표 3, 4 참조).

4. 3 지도 결과

위 아동의 경우, 책을 읽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게 되었고, 책 속에

서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치유하고 있었다. 수업도중 아동의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 적용하지 못할까봐 많은 우려를 했다. 부모님의 학습에 대한 많은 관심 즉, 독서를 학습의 연장선으로 보고 계셨기 때문에 설득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설득 후, 충분히 이해를 하게 되었고 개관적인 입장에서 아동의 모습을 지켜보고 도움을 주셨다.

독서가 학습의 연장선으로 되기보다는 즐거움으로 출발하여 나를 발견하고 주변을 돌아보고 가치관 정립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배경 지식으로 쌓여 학습에 도움이 될 때 독서의 매력이 있고, 부담 없이 책을 대할 때 독서의 진정한 힘이 우러나온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 아동의 경우 많은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치유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내 마음의 선물〉은 건성으로 책을 보아왔던 아동자신의 습관을 발견하게 해 준 책이다. 이후, 정독하는 습관에 대해 많은 신경을 썼고, 아동 스스로도 끼고 다녔던 만화책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될 정도로 건성으로 읽는 습관을 버리기 위해 노력했다. 이 습관은 6개월 정도 지난 후에 조금씩 교정되기 시작했다.

〈모르는 책〉은 자기중심적인 성향으로 인해 약간의 왕따를 당하고 있던 아동에게 친구 관계에 대해 새로운 생각을 하게 해 준 책이다. 자기중심적 성향, 이기주의는 물질만능주의의 현대를 사는 아동에게 대부분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하지만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배려해 주는 모습이 필요하다. 이 책을 읽은 이후 이 아동은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위해 노력했다. 배려하고 인내하는 것은 쉬운 것

〈표 2〉 활동자료와 목표

활동 자료	목 표
1. 내 친구 비차 (니콜라이 노소프 / 사계절)	낙제하는 두 친구 비차(수학)와 코스차(국어)간의 우정을 통해 참다운 우정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한다.
2. 내 마음의 선물 (오토다케 히로타다 / 창해)	주인공 유타와 친구 요시히코, 가즈토를 통해 아주 친한 사이, 서먹서먹한 사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따뜻한 친구 사이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통해 친구를 배려하기 위한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3. 살롯의 거미줄 (엘윈 브룩스 화이트 / 시공주니어)	'돼지'와 '거미'라는 전혀 어울릴 수 없는 두 동물의 참다운 우정을 통해 친구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한다.
4.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이문열 / 다림)	자유당 정권 말기의 사회상을 초등학교 교실로 옮긴 친구들의 모습(즉, 독재자, 기회주의자, 소시민적 근성을 가진 친구) 속에서 진정한 친구, 진정한 영웅, 친구 사이의 폭력 등을 생각해 보고 사회의 문제점과 나 자신의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본다.
5. 밥테기 죽테기 (권정생 / 바오로딸)	인간들에게 한을 품게 된 늑대 할머니가 평화를 위한 사도가 되어 우리의 아픈 역사를 치유할 수 있는 일을 벌이는 과정을 통해, 늑대 할머니의 변화되어 가는 모습 속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본다.
6. 미운 들멍이 : 철수는 철수다 (어린이도서연구회 / 오늘)	철수와 철수 엄마의 입장 즉, 학생인 나의 입장과 자식을 키우는 엄마의 입장이 되어 서로에게 바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 '나를 찾아가는 과정',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에 대해 생각해 본다.
7. 모르는 척 (우메다 슌사코 길벗어린이)	세 사람의 입장 즉, 피해자의 입장, 가해자의 입장, 방관자의 입장이 되어 책을 3번 정도 읽어보게 하여 왕따, 집단 따돌림에 대해 생각해 보고, 좋은 친구 관계를 맺기 위해 신경 써야 할 점들을 생각해 보게 한다.
8. 나무를 심은 사람 (장지오노 / 두레)	노인이 나무를 심은 이유에 대해 알아보고, 노인의 나무 심는 행동으로 치유되었던 자연적인 것, 인간적인 것들에 대해 생각해 본다. 또한 노인이 나무를 심지 않았을 경우를 생각해 보고 더불어 사는 삶의 소중함을 느껴본다.
9. 마음이 자라는 소리 (조성자 / 시공주니어)	재혼하는 엄마를 둔 사춘기 소녀 성은이를 통해 새 가족을 받아들이는 힘든 과정을 느껴보고, 한 가족이 되기 위해 서로 배려해야 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서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나'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한다.
10. 꽃바람 (이금이 / 푸른책들)	남남인 사람들이 혈연에 기대지 않고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힘. 사랑으로 감싸안고 사랑으로 뭉치게 하는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삶과 공부밖에 몰랐던 정호가 진정한 가족의 일원으로 성숙되어 가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소중한 가족의 의미를 되새겨 본다.

이 아니지만 혼자 살 수 없는 사회 속에서 친구들에 대해 예의를 알아 가는 것은 중요하다. 아이들 속에 흔히 일어나고 있는 '따돌림'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한 몸부림의 표현일 수도 있지만 '나'를 다듬어 가는 과정은 아름다워 보였다.

〈나무를 심은 사람〉은 이 아동이 책과 하나가 되는 계기를 만들어준 책이다. 특히, 프레데릭 바크가 5년 동안 직접 그린 약 2만장의 그림이 애니메이션으로 영화화 된 비디오는, 아동이 책의 마력에 동화되어 하나가 됨을 보여주었다. 수업이 오후 5시경에 이루어지기

〈표 3〉 독서 지도 계획안 1

참고 도서	모르는 척 / 우메다 슌사코 / 길벗어린이	
지도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 따돌림의 세 가지(피해자, 가해자, 방관자) 입장에서 내 모습은 어디에 속하는지 알아본다. - 좋은 친구관계를 맺기 위해 신경 써야 할 점들을 알게 한다. 	
도 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 따돌림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요? - 집단 따돌림(왕따)은 어떤 아이들이 당한다고 생각하나요? 	
전 개	내용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돈쟁이 왕따를 당하기 시작한 첫 사건은 무엇인가요? - 주인공은 왜 왕따를 당하는 친구 돈쟁이를 도와 줄 수가 없었나요? - 돈쟁이는 어떻게 변화되어 가나요? - 주인공의 양심선언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 주인공(방관자), 돈쟁이(피해자), 야라가세(가해자) 모두에게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용기를 불어 넣어준 사람은 누구인가요?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 속의 이야기와 같은 경험을 해 본적이 있나요? - 흠, 나를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유가 뭘까요? - 이야기를 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따돌림받는 아이, 따돌리는 아이, 모르는 척하는 아이 모두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 너와 나는 왜 다를까요? 차이와 편견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 집단 괴롭힘을 해결할 수 있는 진정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마 무 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좋은 친구관계를 맺고 또 유지하기 위해 신경 써야 할 점들을 써 봅시다. 	

〈표 4〉 독서지도 계획안 2

참고 도서	나무를 심은 사람 / 장지오노 / 두레	
지도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더불어 사는 모습의 소중함을 느끼게 한다. - 내 마음의 황무지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다. 	
도 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무는 사람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나요? - 우리 주변에서 몸을 아끼지 않고 자기를 희생하며 봉사하는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요? 	
전 개	내용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은 왜 나무를 심었나요? - 노인이 나무를 심지 않았다면 프랑스의 프로방스 지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 1차 세계대전 후, 노인이 생업을 바꾸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 주인공은, 34년 동안 나무 심는 일을 묵묵히 끊임없이 해온 그를 어떻게 불렀나요? - 죽음의 공간을 생명의 공간으로 바꾸어 놓은 노인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산 사람일까요?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의 나무 심는 행동은 자연적인 황무지만 치유한 것이 아니라 인간내면의 황무지도 치유했 습니다. 자연과 인간의 삶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 내 마음에 치유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을 1순위로 하고 싶을까요? - 우리 가족 또는 우리 사회를 위해 내가 치유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 '지구재녹화운동'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봅시다.
마 무 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을 시화로 그려봅시다. 	

때문에 지루해 하는 아이도 있었는데, 이 아동은 친구들의 숨소리마저 신경 쓰일 정도로 집중하고 있었다. 아이는 책의 마력을 느끼며 즐기고 있었다.

〈마음이 자라는 소리〉는 8개월이 지난 후의 필독서였다. 책소개를 할 때 이야기의 흐름이 정확하게 이어져 완전한 정독을 하고 있음이 친구들 앞에서 증명되었다. 건성으로 읽던 독서습관이 제대로 자리잡고 있었다. 아동은 자신감이 있었고 작품과 하나가 되어 있었으며, 이 책을 읽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진 내적 동기의 힘은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장 주목할 점은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강했던 아동이 남을 배려하는 모습이 행동으로 드러나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오래 동안 습관 되어진 사람의 성향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많은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아동의 내적 동기가 본인 스스로에 의해 이루어졌고, 자신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을 책 속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과정을 거쳐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위 아동의 경우 독서수준이 떨어지는 아동이 아니라 독서습관의 잘못으로 읽기에 문제가 있는 아동이었다. 건성으로 책을 읽는 것은 학생의 입장에서 볼 때 중요한 문제다. 읽기는 모든 학습과목의 기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잘 못 된 습관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경우 학습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책 읽는 습관을 들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정독이다. 정독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 있어야 다른 방법으로 책을 접하게 되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좋은 책은 정독을

해야한다. 글 속에 담긴 뜻을 음미하면서 주의 깊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살피면서 읽어야 생각이 자라날 수 있다. 창의력, 상상력, 비판력, 분석력, 추리력, 감지력, 문제해결력 등의 능력이 정독하는 힘에서 나오게 된다.

헌신적인 부모님의 열의가 아동을 '보여주기 위한 읽기'와 '자기중심적인 성향'으로 이끌고 있었지만, 책과의 만남을 통해 이론 제대로 된 읽기(정독)와 더불어 사는 삶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자신감도 높아졌고 긍정적인 자아개념이 형성되고 있었다.

5. 결 론

독서지도가 각급학교에서 교과목으로 채택되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정에서도 관심있는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독서교육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독서붐은 아동도서 출판계에도 적잖은 바람으로 작용하고 있다. 활발하게 책읽기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테스트지를 활용하여 아동의 독서능력을 진단하고, 상담을 통해 좀더 구체적인 독서 장애요인을 발견할 수 있다. 독서능력부진은 읽기부진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며, 읽기부진은 주의집중력 부족을 가져오고, 이러한 주의집중력 부족은 학습부진과 연결되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학생의 행동이 부잡해 보인 다든지, 문제해결 능력이 떨어지는 등 여러 가지 나쁜 상황으로 몰고 가게 된다. 이러한 연유로 인하여 독서지도, 그리고 발달독서치료의 예방적 차원에서 읽기부진 지도를 하는 클리닉독서지도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본 연

구는 독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고학년을 중심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독서와 관련하여 독서장애의 유형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독서지도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응답내용으로서 편향적독서습관, 책읽기를 싫어한다든지, 단순한 책만 읽는다든지, 독서습관이 부족하다든지 등이 있었다. 또한 이해력, 집중력이 부족하다든지, 읽기장애문제가 있다든지, 주의가 산만하다든지, 수준에 맞는 책을 모른다든지 하는 내용들은 독서수준테스트를 통한 클리닉독서지도의 방법이 필요함을 입증하는 응답내용이라고 생각된다. 초등고학년들을 대상으로, 학업성적은 우수하나 읽기습관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정독을 하지 못하고 건성으로 읽어 내용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 초등고학년 아동의 독서지도 사례를 제시하였다.

많은 학부모들은 유아시기나 초등학교 저학년 까지 자녀들이 책을 가까이 하지 않아도

크게 염려하지 않는다. 언어는 크게 듣기와 읽기인 받아들이는 언어와 말하기와 쓰기인 표현하는 언어로 구분할 수 있는데, 초등 저학년 까지의 아동들은 받아들이는 언어의 시기로서 주로 부모님이 읽어주는 동화책을 잘 듣기 때문이다. 그러나 읽어주는 시기에서 스스로 읽는 시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혼자 읽어야 할 시기를 놓치고 계속 책 읽는 일을 게을리 하게 되면 학년이 올라가면서 학습능력에서 무리가 오게 된다. 학년이 올라가면서 교과서의 내용은 그만큼 어려워지게 되므로, 지속적인 책읽기를 통하여 학년에 따른 이해력도 함께 높여주어야 한다. 우리가 입는 옷들을 사계절에 맞추어 장롱에 잘 구비해 놓듯이, 자녀의 성장에 맞추어 좋은 책들을 얼마나 갖추어 주고 있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혼자서도 책을 읽고 늘 가까이 하는 아동의 모습 뒤에는 환경적으로 잘 뒷받침해 주는 부모와 학교 그리고 도서관의 노력이 숨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윤정옥. 1998. 독서요법의 이론과 적용. 『도서관』, 53(1): 47-64.
- 이선옥. 2002. 『읽기학습부진아를 위한 개별화 독서프로그램이 자아개념 및 읽기 능력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 논문.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 전정재. 1999. 『우리아이 어떻게 기를까?』. 서울: 열음사.
- 전정재. 2001. 『독서의 이해』. 서울: 한국방송출판.
- 전정재. 『사랑의 혁명』. 서울: 시공사.
- 컬리년, 버니스. 2001. 『책 읽어주는 엄마가 자녀를 성공시킨다』. 최진 옮김. 서울: 대교출판.
- 쿠첸, 바바라. 1997. 『아동의 스트레스』. 강영자, 박성옥, 양명숙 편역. 서울: 양서원.
- 한국도서관협회. 1999. 『국민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독서서지정보시스템 개발보고서』.
- 한국도서관협회. 1999. 『순회독서지도 자료집』.
- 한윤옥. 2003. 독서치료를 위한 상황별 독서목

- 록의 기초적 요건에 관한 연구-상황 설정 및 분류체계와 관련하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7(1): 5-25.
- Doll, Beth & Carol Doll, 1997. *Bibliotherapy with Young People*. Englewood: Libraries Unlimited, 124.
<http://www.washburn.edu/mab>
- Pardeck, John T. 1998. *Using Books in Clinical Social Work Practice - A Guide to Bibliotherapy*. New York: The Haworth Press.
- Pardeck, John T. & Jean A. Pardeck. 1993. *Bibliotherapy - A Clinical Approach for Helping Children*. New York: Gordon & Breach Science.
- Rubin, Rhea J. 1978. *Bibliotherapy Sourcebook*. London: Oryxpress.
- Sridhar, Dheepa. 2000. *Effects of bibliotherapy + on extcomprehension, reading attitude, and self-concept in third and fourth grade students with attention difficulties*. The Univ. of Texas Austin.(Ph.D)
- Stanly, Jacqueline. 1999. *Reading to Heal: How to Use Bibliotherapy to Improve Your Life*. Boston: Element.